

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남규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취업률에 미치는 대학요인으로서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에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을 추가하였다.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은 대학공시지표에서 도출하였다. 창업교육 요인에는 창업강좌 이수자수,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창업캠프 참여인원수와 창업지원 요인으로 전담교직원수, 창업교육 지원예산을 추가하였다.

설정된 연구 모형에 대해 전국 4년제 종합대학으로 특수목적대학 및 졸업생 1000명 미만의 대학을 제외한 1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 중에서 유일하게 창업강좌 이수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유의수준 $p=.070$ 로 채택여부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대학요인,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교육지원, 취업률

1. 서론

1.1 연구배경

본 연구는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취업률 산정에서 창업자도 취업률에 포함되고 있으며, 취업률은 엄밀히 정의하면 취·창업률이 된다. 그러므로 취업률은 취·창업자수 모두를 포함한다. 대학의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교과과정, 비교과과정으로 구분된다. 교과과정은 학점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양, 전공,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이 있다. 비교과과정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동아리활동, 캠프참가, 경진대회참가가 대표적이다.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경험은 기업이 원하는 OJT교육과 같은 실무역량을 졸업자에게 제공한다. 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점으로 평가되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동아리활동을 통해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의 기술개발 역량, 조직경영능력, 마케팅역량 및 자원관리역량은 회사에 원하는 셀프인턴과 같은 압축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력서의 정량적 지표에서의 이력서에 기재되는 경진대회 수상경력, 자기소개서상에 기술되는 압축경험에 대한 정성적인 기술은 인사담당자의

눈높이를 만족시킨다.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기존의 취업 연관 키워드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학점, 어학능력, 자격증, 전공이 있다. 또한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참가, 지원서 작성, 면접특강, 취업강좌 참여, 취업동아리 활동, 구직노력이 있다.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대학의 평판도 등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취업률에 미치는 요인분석연구는 취업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요인만을 고려함을 알 수 있으며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에서 첫 출발은 취업지원서이다. 취업지원서는 크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구성된다. 이력서는 정량적인 지표를 작성한다면 자기소개서는 정성적인 내용이다. 지원동기, 미래포부, 실천계획으로 구성되며 지원동기는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포부는 혁신성 또는 창의성에 해당하며, 실천계획은 위험관리역량에 해당한다. 인사담당자는 구직자의 외적 조건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으로 인성, 진취성, 창의성, 위험관리능력, 리더십, 소통·공감 역량을 강조한다. 이러한 역량은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인변수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인사담당자는 이력서상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자기소개서상에 나타난 정성적인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의 목적은 이력서상에 나타난 정량적 조건보다는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인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양한 질문으로 지원자의 인성

* 이 논문은 2019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9-0410)

** 단독,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경영학과 교수, parknamguc@gmail.com

· 투고일: 2020-07-13 · 수정일: 2020-08-10 · 게재확정일: 2020-08-20

과 생각, 이력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핵심역량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을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하다.

취업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취업 관련 외적 요인으로서 학점, 어학능력, 자격증, 전공 등을 통하여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취업코칭, 취업멘토링, 취업캠프, 취업스펙 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창업교육/지원은 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취·창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는 분리되어 있다, 취업률 통계에서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취업률 기여는 관심 밖의 사항이 되어 왔다. 이는 사람의 인체로 표현하면 피부트러블이 있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은 인체 장기에서 원인이 있으나 눈에 보이는 피부 상태만을 두고 처방을 내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의 인지도 및 전공 학점 등 스펙과는 무관하게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취업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역량강화 노력이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정성적인 기업가정신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요인변수의 도출은 대학정보공시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를 사용한다. 창업교육 하위요인으로 창업 강좌 이수자수,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창업캠프 참여인원수와 창업지원 하위요인으로 전담교직원수, 창업교육 지원예산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취업률로 설정하였다. 또한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시점과 실제 취업 시점의 중단적 분석을 위하여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적용 시점은 선행하므로 2016년 시점에서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취업률은 2017년 8월에서 2018년 2월 졸업생의 취업률을 집계하였다. 대학의 외생변수를 균일화 및 상쇄하기 위하여 4년제 종합대학 중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195개교 중 특수목적대학과 종교목적대학 및 졸업생 기준 1000명 이하를 배출하는 대학을 제외한 1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 규모에 대한 외생변수를 표준화시켰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취업률에 미치거나 취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분법적 접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

앞서 설명하였듯이 취업지원서는 진취성, 혁신성, 위험관리능력, 리더십, 소통·공감 내용으로 채워진다. 지원동기, 미래 포부, 실천계획으로 구성되며 지원동기는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을 내포한다. 미래 포부는 혁신성 또는 창의성을 내포하며, 실천계획은 위험관리역량에 해당한다.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일반적으로 창업가정신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우중, 2013), 프랑스 경제학자 Cantillon 등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entrepreneur’의 어원인 프랑스어 ‘entrepreneur’는 ‘착수하다’, ‘시작하다’를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처음 도입한 학자는 Schumpeter(1934)이다. 기업가정신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김우중, 2013),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 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업가정신 관련 선행 연구

연구자	내용
Schumpeter(1973)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가 환경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라고 정의
Timmons(1994)	창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 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최면경,이경표,2013).
Morris & Lewis (1995)	창업가정신은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의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성에 따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포괄하는 것(김우중, 2013)
Kuratko & Hodgetts(1995)	기업가정신이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부터 비전(vision)을 창조하고 구축하는 능력(민경호, 2006)
차화숙(2012), 박남규(2015)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을 건전하게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가로서 또는 경영자로서의 이념과 경영철학
정연용(2011)	창업가정신이란 경영의 기본적 이념이나 기술을 새로운 문제, 새로운 기회에 유효적절하게 구사하는 예술

2.2 대학요인

2.2.1 대학설립유형

대학설립유형은 대학설립주체에 따른 분류로 대학설립유형이 취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표2>와 같다.

<표 2> 대학설립유형이 취업성공에 미치는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내용
채창균·김태기(2009)	4년제 대학졸업자에 국한하여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사립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간의 취업성공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재휘·김경근(2015)	대학의 설립유형은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길혜지·최윤미(2014)	대학 졸업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의 분석에서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이 1.54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휘정(2010)	설립유형, 규모가 임금에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학의 설립유형과 학교의 규모 모두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2.2.2 대학소재지

대학소재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며, 수도권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학설립유형이 취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표 3>와 같다.

<표 3> 대학소재지가 취업성공에 미치는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내용
이승근(2013), 심재휘·김경근(2015)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연구에서는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성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영(2008)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졸업자에 비해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김태기(2009) 허현자(2018)	4년제 대학의 경우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희정(2014), 심재휘·김경근(2015), 박기열(2009), 허현자(2018)	대기업 취업률에 있어 수도권 대학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와 임금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약16%의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서열의 대리지표인 입학당시의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류장수(2005), 채창균·김태기(2009)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의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으며 일 자리의 질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2.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2.3.1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대학의 공시지표에 의하면 학점 인정하는 창업 강좌와 학점인정을 하지 않는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결과 창업교육 및 지원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선입관이 있다. 취업교육 및 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생의 창업교육 및 지원을 통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정신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창업교육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대학생 양성의 중요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창업교육을 정의하는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에 대한 정의는 대학공시지표를 인용하며 <표 4>와 같다.

<표 4> 창업교육을 구성하는 변수에 대한 정의

변수	정의
창업강좌	대학의 공시정보에서 정의하는 창업강좌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이다.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폴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시업화”, “창작”으로 한정 예시 과목명 ‘마케팅’은 창업강좌로 인정되지 않으나, 과목명 ‘창업마케팅’은 창업강좌로 인정
창업동아리	대학에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가 있으면서 창업에 대한 학습, 교육, 실무 등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창업자원 발굴을 목적으로 대학이 주관 (총장명의의 시상 포함)하여 일정한 공모·평가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대회(대학 단독개최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개최 창업경진대회를 모두 포함하며,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
창업캠프	창업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플랜작성 등 창업역량배양을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숙박하며 일정 기간 동안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위주의 교육의 개최횟수, 창업캠프 참여인원 수 (단독개최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개최 창업캠프를 모두 포함하며,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

2.3.2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전담교직원수와 창업교육 지원예산으로 정의한다. 전담교직원수와 창업교육지원예산에 대한 정의는 대학공시지표를 인용하며 <표 5>와 같다.

<표 5> 창업지원을 구성하는 변수에 대한 정의

변수	정의
전담교직원수	전담교직원은 교원수와 직원수의 합계로 정의한다 교원 수 : 전임교원 중 창업교육 및 지원을 전담(담당업무 중 50% 이상)하는 인력의 수(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교육·지원 포함) 직원 수 : 대학의 직원 중 창업교육 및 지원을 전담(담당업무 중 50% 이상)하는 인력의 수(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교육·지원 포함)
창업교육 지원예산	창업강좌 운영, 워크숍, 멘토링, 경진대회 운영 등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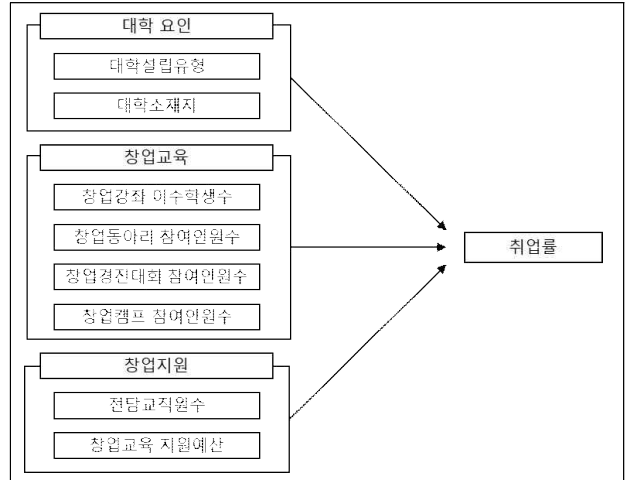
2.4 취업률

대학의 취업률은 조사일(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전년도 8월과 당해년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취업률(%)=(건강보험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대상자))} × 100

<표 6> 취업률을 구성하는 변수에 대한 정의

취업률 산정대상	정의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학에서 제외 · 교외취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대학의 재정지원(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정부재정지원금(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등을 포함한 대학의 모든 회계으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취업한 졸업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자가 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 또는 대학이 졸업자의 인건비를 기업체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함 · 비상근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부적격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해외 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농림어업 종사자	조사기준일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림어업종사자 정의 :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되거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용), 어업허가내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 자료,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한 자
개인창작 활동 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18. 12. 31.)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1인 창(사)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2018년에 사업자등록 사실과 2018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347만원 이상이 확인된 자 또는 2018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
프리랜서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2018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4,721,31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 가설

대학설립유형이 취업성장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사립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채창균·김태기, 2009). 반면 대학의 설립유형은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심재휘·김경근, 2015).

대학소재지는 취업성장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졸업자에 비해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영, 2008). 또한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현자,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선행변수와 대학교육 및 대학지원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요인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교육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창업강좌 이수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선행 연구에서 대학요인으로서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가 있다.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영향이 미친다와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기되었다. 반면,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추가하여 설정해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가설 3: 창업지원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전담교직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창업교육지원예산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설계 및 조사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학생의 기업가정신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기간이 길수록 기업가정신이 강화되어 취업률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창업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학정보공시 자료로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대학공시지표이다. 그러므로 2016년 창업교육·지원 정보를 집계한 2017년도 대학공시지표와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취업자를 집계한 2019년 대학공시지표 취업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연령, 모학력, 학점, 부전공,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해외연수경험, 자격증 유무, 시험 준비, 휴학경험, 사교육참여 여부가 있으며(허현자, 2018), 대학요인으로 대학소재지, 대학설립유형, 전공계열, 대학교육 지원노력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차원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대학전공계열의 영향을 균일화 및 상쇄하기 위하여 전국 4년제 종합대학 195개교 중 특수목적대학과 종교목적대학 및 졸업생 기준 1000명 이하를 배출하는 대학을 제외한 11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교육 지원노력은 정성적인 요인으로 대학교육 지원노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정량적 지표로서 전담교직원수 및 창업교육 지원예산으로 처리하였다.

가설 1 검증을 위하여 대학요인으로서 대학소재지와 대학설립유형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다.

취업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가설1의 대학요인과 가설 2의 창업교육과, 가설3의 창업지원의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의 일종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2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규모에 대한 외생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1000명당 참여인원수 및 전담교직원수, 창업교육지원예산으로 정보를 표준화처리 하였다. 처리된 요인변수는 창업강좌 이수자수(1000명당),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1000명당),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1000명당), 창업캠프 참여인원수(1000명당), 전담교직원수(1000명당), 창업교육지원예산(1000명당)로 표기한다.

3.4 대학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대학의 특성은 <표 7>과 같다.

총 118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소재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4대6으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대학설립유형으로 국립과 사립의 비율은 약 1:3으로 나타났다.

총 118개 대학의 창업교육에서 창업강좌 이수자수 평균은 1689명이며,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평균은 219명이며,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평균은 205명이며,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평균은 17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지원에서 전담 교직원수 평균은 7.5명이며, 창업교육지원예산 평균은 9억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자수 평균은 2422명에 취업자수는 1378명으로 취업률 평균은 64.1%로 나타났다.

<표 7> 대학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대학요인	대학소재지	수도권	46	39.0
		비수도권	72	61.0
	대학설립유형	국립	28	23.7
		사립	90	76.3
	전체	118	10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창업교육	창업강좌 이수자수(명)	1683	1468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명)	213	197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명)	205	227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명)	179	20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창업지원	전담 교직원수(명)	7.5	6.8	
	창업교육 지원예산(원)	908,814,080	1,266,379,0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대학환경	졸업자수(명)	2422	1039	
	취업자수(명)	1378	540	
	취업률(%)	64.1	4.8	

IV. 연구 결과

4.1 회귀분석 결과

<표 8>에서 R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R²값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모형 1은 대학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독립변수인 대학설립유형(더미변수)와 대학소재지(더미변수)가 종속변수인 취업률과

R=0.453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20.5%($R^2=.20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창업교육을 구성하는 하위 독립변수인 창업강좌 이수자수(1000명당), 창업동아리 창업인원수(1000명당), 창업경진대회 창업인원수(1000명당), 창업캠프 참여인원수(1000명당)가 종속변수인 취업률과 R=0.541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29.3%($R^2=.2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창업지원을 구성하는 하위 독립변수인 전담교직원수(1000명당)와 창업교육지원예산(1000명당)이 종속변수인 취업률과 R=0.552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30.5%($R^2=.30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1	.453a	.205	.191	4.3252	
2	.541b	.293	.255	4.1514	
3	.552c	.305	.254	4.1540	.597

- a. 예측변수: (상수), 더미변수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국립사립
- b. 예측변수: (상수), 더미변수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국립사립, 1000명당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1000명당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1000명당 창업강좌 이수자수, 1000명당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 c. 예측변수: (상수), 더미변수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국립사립, 1000명당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1000명당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1000명당 창업강좌 이수자수, 1000명당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1000명당 전담교직원수, 1000명당 창업교육지원예산
- d. 종속 변수: 취업률

<표 9>에서 모형 1, 2, 3의 F값과 유의확률을 보여준다. 모형 1은 F값이 14.828, 유의확률 .000이고, 모형 2는 F값 7.670, 유의확률 .000, 모형 3은 F값 5.978, 유의확률 .000으로 p값이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554.780	2	277.390	14.828	.000b
	잔차	2151.296	115	18.707		
	총계	2706.076	117			
2	회귀분석	793.092	6	132.182	7.670	.000c
	잔차	1912.983	111	17.234		
	총계	2706.076	117			
3	회귀분석	825.230	8	103.154	5.978	.000d
	잔차	1880.846	109	17.255		
	총계	2706.076	117			

- a. 종속 변수: 취업률
- b. 예측변수: (상수), 더미변수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국립사립
- c. 예측변수: (상수), 더미변수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국립사립, 1000명당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1000명당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1000명당 창업강좌 이수자수, 1000명당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 d. 예측변수: (상수), 더미변수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국립사립, 1000명당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1000명당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1000명당 창업강좌 이수자수, 1000명당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1000명당 전담교직원수, 1000명당 창업교육지원예산

<표 10>에서 모형 1은 대학요인으로 독립변수인 대학설립유형(더미변수)과 대학소재지(더미변수)는 t값이 -2.616과 4.002로 유의수준 하에서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1의 대학요인에 창업교육 하위요인들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대해, 대학설립유형(더미변수)과 대학소재지(더미변수)는 t값이 -2.050과 4.456로 유의수준하에서 여전히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의 하위요인으로 창업강좌 이수자수(1000명당)의 t값은 2.479로 유의수준 하에서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동아리 창업인원수(1000명당)와 창업경진대회 창업인원수(1000명당)와 창업캠프 참여인원수(1000명당)의 t값은 각각, .329, -.212, 1.717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1의 대학요인과 모형2의 창업교육 하위요인들에 창업지원 하위요인들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대해, 대학설립유형(더미변수)과 대학소재지(더미변수)는 t값이 -1.954과 4.396로 유의수준하에서 여전히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의 하위요인으로 창업강좌 이수자수(1000명당)의 t값은 2.544로 유의수준 하에서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동아리 창업인원수(1000명당)와 창업경진대회 창업인원수(1000명당)와 창업캠프 참여인원수(1000명당)의 t값은 .195, -.221, 1.829로 여전히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의 하위요인으로 전담교직원수(1000명당)와 창업교육지원예산(1000명당)의 t값은 .914, -1.321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대적 영향력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 영향력은 최종 모형인 모형 3을 기준으로 하며, 모형 3에서 표준화 계수인 베타(β)값의 절대치를 보고 판단한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한다. 절대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대학소재지(더미변수)의 베타 값이 .38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대해 대학소재지(더미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창업강좌 이수자수(1000명당)의 베타 값이 .22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세 번째로 대학설립유형(더미변수)의 베타 값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대학설립유형이 취업성공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사립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채창균·김태기, 2009), 대학소재지는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졸업자에 비해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영, 2008)으며,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현자, 2018).의 연구결과를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대학의 창업교육 하위요인으로서 창업강좌 이수자수, 창업동아리 창업인원수, 창업경진대회 창업인원수,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및 창업지원 하위요인

으로서 전담교직원수와 창업교육지원예산 요인들 중에 창업강좌 이수자수 요인만이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캠프 참여자수(1000명당) 요인의 경우 유의수준 0.07로 유의수준 하에서는 종속변수인 취업률에 미치지 못하나 베타 값이 .177로 향후 추가된 연구조건에서는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10>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63.397	.596		106.442	.000		
	대학설립유형 (더미변수)	-2.523	.965	-.224	-2.616	.010	.942	1.062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3.367	.841	.343	4.002	.000	.942	1.062
2	(상수)	60.963	.978		62.333	.000		
	대학설립유형 (더미변수)	-1.985	.968	-.176	-2.050	.043	.860	1.162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3.796	.852	.387	4.456	.000	.846	1.182
	창업강좌 이수자수 (1000명당)	.002	.001	.218	2.479	.015	.822	1.217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1000명당)	.002	.006	.031	.329	.743	.733	1.364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1000명당)	-.001	.005	-.019	-.212	.833	.804	1.243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1000명당)	.008	.005	.156	1.717	.089	.772	1.296
3	(상수)	60.842	1.006		60.503	.000		
	대학설립유형 (더미변수)	-1.898	.971	-.169	-1.954	.050	.857	1.167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3.794	.863	.386	4.396	.000	.825	1.212
	창업강좌 이수자수 (1000명당)	.002	.001	.226	2.544	.012	.809	1.236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1000명당)	.001	.006	.018	.195	.846	.724	1.382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1000명당)	-.001	.005	-.020	-.221	.826	.802	1.247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1000명당)	.009	.005	.177	1.829	.070	.680	1.470
	전담교직원수 (1000명당)	.163	.179	.089	.914	.363	.668	1.496
	창업교육지원예산 (1000명당)	-1.330E-06	.000	-.130	-1.321	.189	.658	1.519

a. 종속 변수: 취업률

4.2 가설 검증 결과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 = -.169, p > .01$). 따라서 가설 1-1.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

$=.386, p > .001$). 따라서 가설 1-2.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창업강좌 이수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 = .226, p > .05$). 따라서 가설 2-1 ‘창업강좌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 = .018, p > .05$). 따라서 가설 2-2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 되었다.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020, p>.05$). 따라서 가설 2-3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177, p>.05$). 따라서 가설 2-4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유의수준 .070으로 경계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담교직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089, p>.05$). 따라서 가설 3-1 ‘전담교직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창업교육지원예산은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130, p>.05$). 따라서 가설 3-2 ‘창업교육지원예산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11>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공차한계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상수	.596	-	106.442***	.978	-	62.333***	1.006	-	60.503***	-
대학설립유형 (더미변수)	.965	-.224	-2.616**	.968	-.176	-2.050*	.971	-.169	-1.954*	.857
대학소재지 (더미변수)	.841	.343	4.002***	.852	.387	4.456***	.863	.386	4.396***	.825
창업강좌 이수자수 (1000명당)				.001	.218	2.479*	.001	.226	2.544*	.809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1000명당)				.006	.031	.329	.006	.018	.195	.724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1000명당)		-		.005	-.019	-.212	.005	-.020	-.221	.802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1000명당)				.005	.156	1.717	.005	.177	1.829	.680
전담교직원수 (1000명당)							.179	.089	.914	.668
창업교육지원예산 (1000명당)							.000	-.130	-1.321	.658
통계량	$R^2=.205$, 수정된 $R^2=.191$ F=14.828, $p=.000$			$R^2=.293$, 수정된 $R^2=.255$ F=7.670, $p=.000$			$R^2=.305$, 수정된 $R^2=.254$ F=5.978, $p=.000$			

* $p<.05$, ** $p<.01$, *** $p<.001$

4.3 논의

가설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논란에 대하여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사립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채창균·김태기, 200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논문의 결과와 일치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소재지는 취업성공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졸업자에 비해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장기영, 2008), 또한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현자, 2018).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창업강좌 이수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지원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침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논문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향후 창업강좌 이수자수에서 나아가 창업강좌 이론과 실습 및 전공과 교양에서의 차이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초를 제시하는 결과이다.

넷째,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경험적 영향을 미치는 창업동아리 활동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구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으나, 우선 창업교육 및 지원을 받으면서 동아리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팀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창업교육 및 지원을 받고 차년도에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최소 1년간 프로젝트 기반 결과물을 낸다면 차차년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섯째,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창업경진대회가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이유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차별화된 결과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좀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섯째,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177, p>.05$). 그러나 유의수준 .070으로 경계선상에 있으므로, 향후 다른 조건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곱째, 전담교직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취업보다는 창업에 특화된 인적구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담교직원수는 창업교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전담교직원수가 창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덟째, 창업교육지원예산은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취업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창업교육 및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향후 창업교육지원예산이 창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V.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국 4년제 종합대학으로 특수목적대학 및 졸업생 1000명 미만의 대학을 제외한 1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된 취업률에 미치는 요인 중 독립변수로 대학의 특징 요인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대학소재지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는 대학설립유형에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추가한다. 대학 공시지표를 기준으로 창업교육 하의 독립변수로 창업강좌 이수자수와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창업캠프 참여인원수가 있으며, 창업지원 하의 독립변수로 전담 교직원수와 창업교육 지원예산이 있다.

실증분석결과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추가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 중에서 유일하게 창업강좌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177, p>.05$). 그러나 유의수준 $p=.070$ 로 채택여부의 경계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기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학요인으로서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업과 연관된 활동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창업과 연관된 대학의 활동이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채택과 각각의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설립유형이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증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채택 주장이 다수였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는 실증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벗어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공시지표를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하의 요인변수를 도출하였다.

넷째, ‘창업교육 하의 독립변수 중 유일하게 창업강좌 참여인원수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유의수준 $p=0.70$ 으로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창업캠프 참여인원수가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에서 대학공시지표상으로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향후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을 요인 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취업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대학의 창업관련 활동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창업교육 중 창업강좌 이수 학생수와 창업캠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량적인 수치뿐만 아닌 정성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시적이고 정량적인 수치인 건강보험 DB기준 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기울여왔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성적인 부분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가시적인 부분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수단이 없다.

넷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 향상에 필요한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며 취업 기초체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4년 동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인 기업가 정신 배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과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개인별 창업교육 및 지원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4년 동안 중단적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며, 창업관련 활동이 사업아이템 관련 직무역량 강화를 하며, 대학 4년 동안 창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이력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의 내용 충실도에 도움을 주어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었다. 또한 일선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지원단에서의 수치적 집계는 당해연도 기준 창업자 수와 창업강좌 이수자수 수치 외에는 취업률에 기여했음을 증명할 방법이 전무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증명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5.3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이러한 학술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내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연구자료의 한계이다. 전국 대학의 비교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공시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시지표에서 창업강좌 이수학생수,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창업캠프 참여인원수, 전담교직원수, 창업교육 지원예산에서와 같이 단순 수치적 접근만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이력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2016년도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혜택을 받은 참여학생이 2017년 8월 또는 2018년 2월 취업시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창업활동 경력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

REFERENCE

김우중(2013). *소기업가의 창업가정신 시장지향성, 목표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길혜자·최윤미(2014). 대졸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3(6), 1-26.

노경란·허선주(2011).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인턴 경험이 경제적 효과 및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3), 93-109.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1-27.

박가열(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

육연구, 22(2), 181-198.

박남규(2015).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이승근(2013). *전문대학 졸업생의 진로결정 및 취업유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서화정(2014). *대졸자의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변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장기영(2008). *대학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사회경제배경, 교육특성 및 이행준비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연웅(2011). *호텔조직문화와 인적요소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종사자의 팔로워십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민경호(2006). *창업가정신 무역경영사*.

심재휘·김경근(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요인분석: 대학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1), 113-138.

주휘정(2010). 신규대졸자 임금에 대한 개인 및 대학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1), 603-626.

차화숙(2012). *정부정책과 대학교육이 창업가정신과 창업지식에 미치는 영향: 공예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성과 결정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최면경·이경표(2013). 기업영재 중단연구의 이론적 제안 및 고찰. *영재교육연구*, 23(5), 793-815.

허현자(2018).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Cha. H. S.(2012).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ies and University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A Case Study of The Craft Field*. Doctoral dissertation, Dept.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ae. C. K.(2009).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College) Graduates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28(2), 89-107.

Choi. M. G., & Lee. K. P.(2013). Theoretical Proposal and Consideration on Longitudinal Study of Entrepreneurial Gifted Youth.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3(5), 793-815.

Chu. H. J.(2010). Individual and College Effects on New Graduat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0(1), 603-626.

Chung. Y. W.(2011). *A study to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hotel organization culture and human resource fact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followership of hotel employee*. Doctoral dissertation, Tourism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Tourism & Hospitality, Kyonggi University.

Her. H. J.(2018).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Two-year College and Four-year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jong University.

Jang. K. Y.(2008). *Determinants of the First Job Attainment for College Graduates in Korea: effect of*

York: McGraw-Hill/Irwin.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Preparednes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 Kil. H. J., & Choi. Y. M.(2014).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College Characteristics on Graduates Employment Statu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33(6), 1-26.
- Kim, W. J.(2013).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Market Orientation on Firm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Market Orientation.* Ma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Kuratko, D. F., & Hodgetts, R. M.(1995). *Enterpreneurship* 3rd ed.. *The Drydon Press*, 7-14.
- Lee. S. G.(2013).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ed on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Retention of the Junior College Graduat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 Min. K. H.(2006). *Entrepreneurship.* Trade management company.
- Morris, M. H., & Lewis P. S.(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 Park. K. Y.(2009).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Needs for the Competencies of Career Development in the Undergraduat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22(2), 181-198.
- Park. N. G.(2015).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the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Venture University,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Roh. K. R., & Hur. S. J.(2011).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and Internship on Youth Workers` the Economic Outcome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30(3), 93-109.
- Ryu. J. S.(2005). A Study on the Outcome in Labor Market of Provincial University Graduate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 28(2), 1-27.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Schumpeter, J. A.(1973).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Interests, and the Business Cycle.* *New Brunswick: Transaction*, 38-42.
- Seo. H. J.(2014). *Analysis of personal and college effects on the employment outcomes of college graduate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 Shim. J. H., & Kim. K. K.(2015).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arly-career labor market outcomes of young four-year college graduates: Focusing on time to degre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1), 113-138.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Vol. 6).* New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 Support on Employment Rate*

Park Namgue**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factors of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on the employment rate. For this purpose, we study prior research on university factors that affect the employment rate. we add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 support to the university factors that are the type of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the university location, affecting the employment rate. The information of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is derived from the university disclosure information. In the start-up educati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start-up lecture,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start-up club,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start-up competiti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start-up camp and in the start-up support, the number of dedicated faculty members for start-up support, and the start-up training budget are added. The research model is empirically analyzed with 118 universities, excluding special purpose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with less than 1,000 graduates as a national 4-year universit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type of university establish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and the university lo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Among the factors of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entrepreneurship courses i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In addition, although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start-up camp don'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it is found that the significance level $p=0.07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Keywords: University factors, startup education, startup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employment rat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fund of Hoseo University in 2019(2019-0410)

** Park Namgue, Hoseo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Hoseo University, parknamgue@gmail.com